동안거 백일기도





법주사에서는 스님들의 겨울 공부기간 동안인
동안거冬安居를 맞이하여 10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겨울 한철 동안 화두 타파를 위해
정진하듯 불자들도 이 기간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개인의 신행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위해 봉행하는
동안거 특별기도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5년 **11**월 **19**일(음 10월 15일)
- **장　　소** : 대웅보전
- **동 참 금** : 백일기도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1 | 11

부처님 말씀 좋은 일 / **이달의 법문**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라 / **주지스님 법문** 낙엽이 있는 풍경 / **감로의 글** 선혜지 / **걸망메고** 보시공덕 / **575돌 한글날 기고문** 훈민정음 창제의 숨은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 **수행여화** 정원일의 즐거움 / **법주사 소식** / **수능백일기도 회향** / **법주사 행사일정** /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 **관음전 백일기도 회향 및 입재**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 **동안거 백일기도**

좋은 일

몸으로서 악한 행동을 행하지 말라.

언어로서 악한 행동을 행하지 말라.

마음으로 악한 행동을 행하지 말라.

대신 육체적으로 항상 좋은 일을 행하며,

말로서 좋은 일을 행하며

그리고 마음으로서 좋은 일을 행하여라.

항상 두려움을 갖지 말고 좋은 일을 많이 행하여라.

육체로서 좋은 일을 행하고 말로서 좋은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이승에서도 행복하고

저승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소부경전〉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1 11 | 통권 358호



2 부처님 말씀 좋은 일

4 이달의 법문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라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낙엽이 있는 풍경 정도 스님

10 감로의 글 선혜지 두진 스님

12 걸망메고 보시공덕 진정 스님

14 575돌 한글날 기고문 훈민정음 창제의 숨은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목계 스님

17 수행여화 정원일의 즐거움 현진 스님

20 법주사 소식

21 수능백일기도 회향 / 법주사 행사일정

22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 약사여래불 천일기도 / 관음전 백일기도 회향 및 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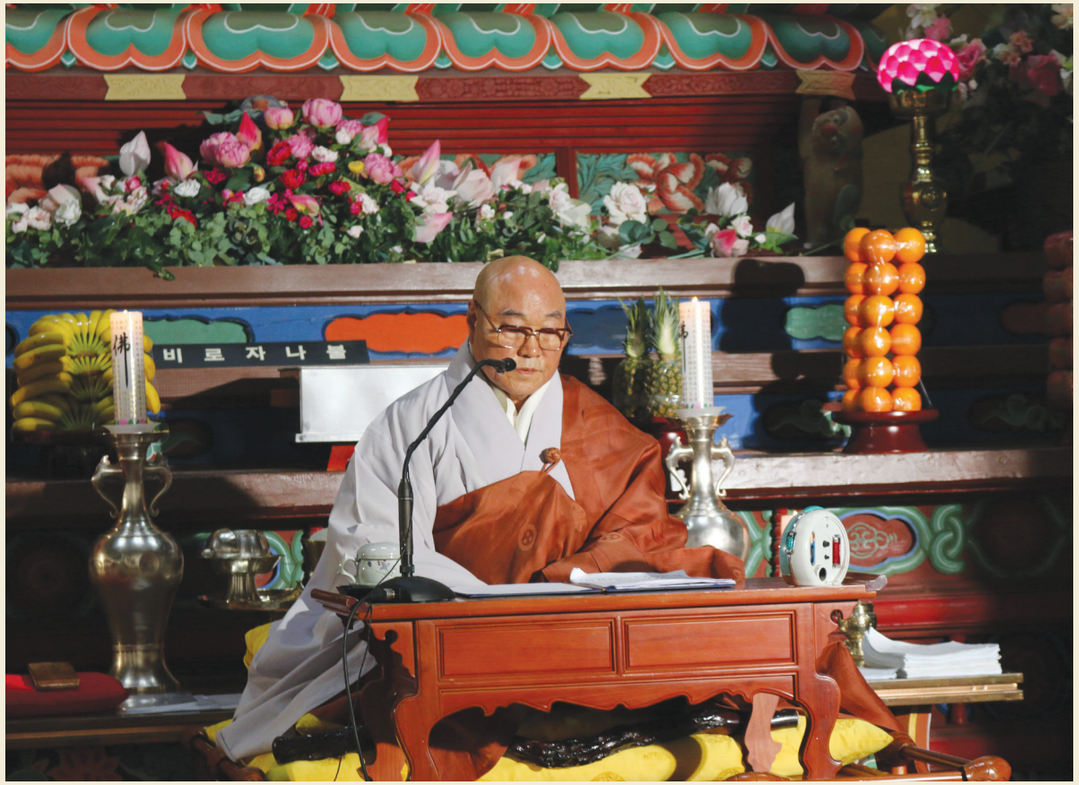
23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교리강좌 개설

24 동안거 백일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5(단기4354)년 11월호 통권 358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라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나는 이미 천상과 인간의 모든 인연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너희들 또한 그러한 속박의 밧줄에서 벗어났다.
이제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
세간으로 나갈 때는 두 사람이 한길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다녀라.
그리하여 세간의 안락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설법하라.
설법할 때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으며 끝도 좋게 하라.
의리와 표현을 고루 갖춘 설법을 하라.
세상에는 더러움이 적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설법을 듣지 않으면 타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설법을 듣는다면 타락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나도 우루벨라의 병자촌으로 가리라.

잡아함 중에 〈승삭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인천의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의 번뇌와 악업에 물들지 않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선언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했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부처님 당신도 우루벨라의 병자촌으로
설법을 하러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에서 우리는 그 결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전법활동은 이런 결심의 산물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설법을 하기 위해 금강보좌에서 일어나
바라나시로 향하던 모습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대각을 성취한 부처님은 첫 설법의 대상자인 교진여 등
다섯 비구를 찾아 무려 18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걷는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인도의 가혹한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마다치 않고 전법의 길에 나서는
청년 여래의 모습은 바로 오늘의 불교를 있게 한 근거입니다.
이러한 것을 불교적 용어로 회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향의 가르침을 실천하되 중생과 보리와 실제에 회향하는 것을 삼처회향이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알려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나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가르침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나의 현재 괴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모두 연기적으로 관계 지어지고
관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나 혼자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간의 안락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을 거쳐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넘쳐날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마음, 더 배우고 나서 하겠다는 조심,
자신은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하기에 옆에서 보고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는 겸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법상에 오르지 않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목소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말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비유를 들어
쉽게 자신이 배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타락의 길목에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면 나는 더욱더 인연과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我此普賢殊勝行
無邊勝福皆回向
普願沈溺諸眾生
速往無量光佛刹

내가 지은 수승하온 보현행의
가없는 복덕을 다 회향하오니
바라건대 고해에 빠진 모든 중생이
속히 불국정토에 살게 하여지이다.



낙엽이 있는 풍경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시간의 속도는
자신의 나이와 비례한다고들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각자가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요즘 시국에는 우리 모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바라지만
시간은 계절을 어느덧
겨울의 문턱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낙엽이 있는 속리산의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언제 이리 시간이 갔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볼품없는 낙엽도
멀리서 바라보면 운치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듯
우리의 지나온 시간과
지금도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시간도
가끔은 멀리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혜지(善慧地, Sādhumati Bhūmi)

두진 스님 법주사 교무국장

〈지난호에 이어서〉

4무애지(無礙智 법, 뜻, 언어, 설법)를 성취하여
자유자재한 지혜로 두루 가르침을 설하는 경지이다.

"불자여, 보살이 이 선혜지에 머물러
큰 법사가 되어 법사의 행을 갖추고,
여래의 많은 가르침을 잘 지키고,
한량없는 방편의 지혜로 4무애지를 일으켜
보살의 말로 가르침을 설합니다.
이 보살은 항상 4무애지에 따라
걸림 없는 지혜(法無礙智),
뜻에 걸림 없는 지혜(義無礙智),
말에 걸림 없는 지혜(辭無礙智),
바라는 대로 설하는 걸림 없는 지혜(樂說無礙智)입니다.
이 보살은 가르침에 걸림 없는 지혜로
모든 가르침의 특징을 알고, 뜻에 걸림 없는 지혜로
모든 가르침의 차이를 알고, 말에 걸림 없는 지혜로
착오 없이 설하고, 바라는 대로 설하는 걸림 없는
지혜로 끊이지 않고 한량없이 설합니다."

또한 제9지 선혜지의 보살은 모든 대중을
다 깨닫게 한다.



① 이 보살이 법상에 앉아서 한 음성으로써
모든 대중을 다 깨닫게 하고자 하여
곧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② 어떤 때에는 가지가지 음성으로써
모든 대중을 다 깨닫게 하고자 하느니라.
③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큰 광명을 놓아서
법문을 연설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④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그 몸의 낱낱 모공에서
다 법문의 소리를 연설하고자 하느니라.
⑤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일체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는 물건 등에
모두 미묘한 법문의 음성을 내게 하고자 하느니라.
⑥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내어서
법계에 가득히 퍼져서 여럿이
다 깨닫게 하고자 하느니라.
⑦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일체 말과 음성이
다 법문의 소리가 되어 항상 머물고
없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느니라.
⑧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모든 세계의 퉁소와
적(笛 피리)과 종과 북과 노래와 일체 풍류 소리가
다 법문을 연설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⑨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한 글자 가운데
일체 법문 구절과 말과 음성의 차별한 것을
모두 구족케 하고자 하느니라.
⑩ 어떤 때에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이
한량없는 세계의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따위의
큰 덩어리에 있는 작은 먼지의 낱낱 먼지들마다
모두 말할 수 없는 법문을 연설하게
하고자 하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불자여, 보살이 이 제9지에 머물러서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근하고 다른 생각이 없으며,
오직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서 여래를 친근하며,
모든 보살들의 매우 깊은 해탈에 들어가서
항상 삼매에 있으면서 여러 부처님을 늘 친견하고
잠깐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낱낱 겁마다 한량없는 부처님과 한량없는
백 부처님과 한량없는 천 부처님과 내지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느니라.
여러 부처님 계신데서 갖가지로 질문하여
법을 설하는 다라니를 얻어 지닌 바의 선근이
점점 더 밝고 깨끗하여지느니라.
마치 진금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보배 관을 만들어 전륜성왕의 머리에 장엄하면
사천하 안에 있는 모든 왕과 신하들의
여러 장엄거리로는 그와 같을 것이 없느니라.
이 제9지 보살의 선근도 그와 같아서
일체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아래 지위에 있는
보살들이 가진 선근으로는 능히 더불어
같을 수가 없느니라."

"불자여, 마치 이전세계의 임금인 대범천왕이
몸으로 광명을 내면 이천세계 중에 있는
깊고 먼 곳을 모두 비추어서 그 어둠을 없애느니라.
이 지위의 보살 선근(善根)도 그와 같아서
능히 광명을 내어 중생의 마음을 비추어
번뇌의 어두움을 모두 없어지게 하느니라."

이 보살이 다른 바라밀다를 닦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십바라밀다 중에서 힘(力)바라밀다가
가장 수승하다.

보시공덕布施功德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보시는 차별과 분별 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며,
보시의 공덕까지도 남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도록 회향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불교에 보시공덕布施功德이란 말이 있다.
보시란 말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결실과 함께 구제받지 못한 세상의
모든 유정물有情物을 구제해 준다는 이타利他의
서원誓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반야般若의 지혜를 떠나서는
올바른 보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야에 입각한 보시는 주객이 분리된 입장에서
구축되는 의도가 아니라 분별을 초월한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 보시는
현실사회 속에서 자비로써 작용되어야만 하며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덕은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선정禪定을
통해서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덕은
보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한다. 불가佛家에서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자신이 힘들여 쌓은 공덕을
남에게 돌릴 줄 아는 보살을 이상적인 불자의
모습이라고 본다.
옛날 어느 큰 절 앞에는 항상 절에서 법회를
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절 입구에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이었다.
그 거지는 매일 절을 찾아 들어가는 신도들을
향하여 '한 푼 만 보태 줍쇼!'하고 사정을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꽤 시일이 지난 어느 날,
그 절에서는 관음전 낙성식이 있었고,
그날은 새로운 주지스님이 소임을 받고
그 절로 온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새로운 주지스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낙성식 겸
주지 스님이 부임하는 날, 항상 절 앞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법당 안으로 들어서자
중들은 나가라고, 마구 내쫓는 것이었다.
그러자 거지는 관음전 앞 땅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한 푼 만 보태 달라고
구걸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동냥을 주기는커녕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며 나가라고
고함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윽고 행사가 진행되는데 새로 오신다는
주지스님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많은 신도들이 술렁이기 시작하자,
그 거지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앞으로 나가더니
법석에 앉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누가 저 사람 좀 끌어내라"라고 고함을 치며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자, 그 거지가 법석에 앉아
요지부동의 자세로 대중들을 향하여
일갈一喝을 했다.

"이 중에 참 불자가 누구인가?
이 중에 바른 눈을 가진 자 누구인가?
이 중에 보시 바라밀을 하는 자 누구인가?
이 중에 육바라밀을 배운 자 누구인가?"
그리고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절에 소임을 맡은 새로운 주지올시다.
여러분들이 과연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참사람 보는 지혜의 눈도 못 뜨고
무슨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구한다는 말인가?
여러분은 부처님과 거래를 하러 오는 사람이지.
어떻게 불공을 드리러 오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부처님께 절하면서 뭐,
뭐 잘 되게나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 거래를 하자는 행위이다.
내가 오늘 찾아와 기도 했으니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 달라고, 부처님과 거래를 하려는 자가
어찌 불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거의 달포 가까이 이 절 일주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거지 행색을 하고 구걸을 해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돈 한 푼 기꺼이 내놓은 사람이
있었던가? 복 짓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부처님 전에 찾아와, 잘 되게만 해 달라고
하니 그게 거래가 아니고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그런 조건부 거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전생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지은, 알게 모르게 쌓인 업보를 참회하라 하셨거늘,
그 일은 내 팽개치고
그냥 잘 되게만 해 달라고 해서는 불자가 아니다"

이처럼 보시는 차별과 분별없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며, 보시의 공덕까지도 남에게
그 공덕이 돌아가도록 회향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얼마전 법주사 팔상전에서
가사 불사 점안 회향식을 했다. 많은 신도분들께서
동참하시어 팔상전 가사불사와 많은 스님분들께도
가사를 불사 해주셨다. 많은 신도분들께서
자신과 인연이 있는 스님과 그렇지 않은 스님들께도
똑같이 마음을 내주셔서 법주사에 계신
모든 스님들께 가사를 보시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보시이다.
다시 한번 이번 가사불사에 동참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숨은 주역 혜각존자 신미대사

목계 스님 혜각존자 신미대사 선양회 사업단장 / 법주사 후학 목계 만암

〈지난호에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 1450년
세종 32년 1월 26일 세종 임금께서
병환이 나았는데도 정근精勤을 파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불사를 일으켜 스님 신미信眉를 불러
침실 안으로 맞아들여 법사法事를
크게 베풀게 하고서 대사大師를 높은 예절로서
환대를 하시고서 이어 대사에게 시호諡號를
제수하시고자 세종 임금께서 시호 내용을
손수 작성하셨는데 대사의 시호는
선교종 도총섭 밀전 정법 비지쌍운 우국 이세
원융무애 혜각 존자慧覺尊者로 삼는다. 하고서
세종 임금께서 직접 대사에게 시호를 제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임금의 용체龍體가
미령未寧하심으로 인하여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아들 문종에게 승직僧職과 함께 시호를
제수하도록 유훈으로 일임을 하셨으며
다시 다음 달 윤. 1월 29일 대사의 외삼촌이며
한명회의 외조부이신 이적이 아비 이행을 욕한 죄를
물어 함경도 오지 경원慶源에 옮겨 살게 하도록
하였는데 대사께서 임금에게 이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청하자
이를 용서하여(迹曾以罵父, 移慶源,
至是以其甥寵僧信眉之請) 주시고서
1450년 세종 32년 2월 17일 영응 대군 집
동별궁에서 붕어崩御를 하시게 되자,
1450년 문종 즉위년 7월 6일 문종 임금께서
선왕의 유훈에 따라 대사에게 시호를 제수하고자
금란지金鸞紙에 관교官敎를 써서 자초 폭紫綃幅으로
싸서 사람을 보내어 주었는데,
우리 국조(國朝) 이래로 이러한 승직僧職이 없었다.
임금이 이 직職을 주고자 하여 일찍이
정부에 의논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마침내 봉작封爵하게 되었는데,
듣는 사람이 놀라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기록이 실록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종 임금께서 신미에게 제수하고자
손수 작성하신 시호 내용에 세종 7년 조선불교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한 이래 최초로 선종과 교종을



통솔하는 최고의 승직僧職인 선교종禪敎宗
도총섭都摠攝이란 직책이며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는
우국祐國 이세利世 칭호와 "왕사王師의 호칭"인
혜각 존자慧覺尊者 칭호를 제수하시고자 하였던
시호에 이 세 가지 내용을 넣어 대사께서
훈민정음 창제 역사의 숨은 공로자였음을
밝혀놓았던 세종의 깊은 숨은 의지를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궁금한
하나의 의문점은 승려 출신이었던 신미대사께서
"나라를 위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왔으며
다시 무슨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하였기에"
세종 임금은 시호 내용에 우국 이세 칭호를
넣었으며 다시 존자께서 세종 임금에게
어떠한 정신적 영향력을 크게 미쳐기에
임금의 스승 "왕사의 호칭"인 존자 칭호를

시호에 넣어 제수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던
조선 오백 년 오랜 역사에서 승려 출신이
나라의 스승이나 왕의 스승인 "존자" 칭호로
불리어진 승려는 역대로 혜각 존자 신미대사와
더불어 묘각 존자 무학대사 그리고
보제 존자 서산대사 홍제 존자 사명 대사
단 네 분 스님이 전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조선 오백 년 오랜 역사에서 역대로
왕사 칭호인 존자로 불리어진 네 분의 승려 중
묘각 존자 무학대사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한 건국 공신이었기에
태조(太祖) 임금의 왕사로 불리어졌으며
보제 존자 서산대사와 홍제 존자 사명대사는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
나라와 백성들이 병란으로 인하여 환란患亂과
도탄塗炭에 빠지자 팔도승병장八道僧兵將이 되어
의승군義僧軍들과 함께 창 검을 들고 왜군을
토벌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병란의 위기에서
구했던 구국공신救國功臣이었기에
선조 임금은 서산대사에게 왕사의 칭호인
보제 존자란 시호를 제수하였으며 사명대사도
광해 임금 시대에 홍제 존자로 불리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앞서 세 분 스님들의
역사적인 면면을 한분 한분 깊이 도리 켜 볼 때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하는
우국 이세 칭호와 왕사의 칭호였던
혜각 존자를 시호에 넣어 신미에게 제수하고자
하셨던 세종 임금의 깊은 의중意中의 메시지는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 창제 역사와 깊은 관련이
되었을 것으로 이를 유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영화 연극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민정음 창제의 숨은 주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미대사는 조선왕조실록에
대사와 관련하여 기록이 기재된 내용은
1446년 세종 28년 5월 27일 대자암에서
소헌왕후의 수륙재를 대사께서 주관하셨던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1497년 연산 3년 7월 17일
"이것은 본시 신미의 밭인데 학조에 전해졌으니,
학조가 죽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스님에게
전할 것입니다고 하는 마지막 기록까지
약 51년간 7대 왕조에 걸쳐서
혜각 존자 신미대사와 관련한 기사 내용이
76여 회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추측을 하여볼 때 공맹孔孟의 가르침을 숭상하며
불교를 탄압하고 배척하던
조선 왕조 오백 년 오랜 역사에서 승려 출신 한 분의
기록으로는 매우 보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횟수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어도 대사와 관련하여 왕조 실록에
이러한 횟수로 기사가 기재된
여러 역사적인 정황 등으로 살펴볼 때
대사께서는 역대 왕실의 절대적인 비호를 받으며
조정에서 영향력이 대단하였을 것으로
이를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정원일의 즐거움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이틀 동안 코스모스와 봉선화 꽃대를 잘라 주었다.
이곳저곳 군락으로 심었더니 베고 정리하는데도 일손이 많이 필요했다.
꽃이 피어 있으면 저절로 그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마련이다.
우리 정원에 이 꽃들이 있어서 아주 행복했었다. 가을 하늘 아래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꽃이기도 했다.
꽃이 지고 말라버린 꽃대를 정리해주는 것도 정원관리의 기본이다.
그냥 두면 지저분하기도 하거니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꽃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는 꽃과 피는 꽃이 함께 있으면 새로 피어나는 꽃이
돋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는 꽃이 다음 꽃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의식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는 꽃이 억울할 일은 아니다. 자신도 때를 만나 화려하게 꽃 피웠으니
후회도 원망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잘라 낸 코스모스와 봉선화도 매력을
한껏 뽐내던 날이 있었다. 열흘 붉은 꽃이 어디 있으랴. 얼마나 오래 피어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화려하게 피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러하기에 우리의 인생도 그 한 때를 열심히 살아가는 일이 더 소중할 것이다.
코스모스와 봉선화 씨앗을 따로 받았으니 이제 내년 봄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손을 댄 김에 부용화, 도라지, 메리골드 등 필요한 꽃씨를 더 모아두었다.
지난주에는 옆 동네를 들렀다가 우리 정원에 없는 꽃씨가 있어서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고 몇 개 따왔다. 서울의 지인이 다녀가면서 금화규와 접시꽃 씨앗을
선물로 주고 갔는데, 그 어떤 물건보다 귀하게 보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키 작은 코스모스 씨앗을 두고 가는 바람에 올 가을에 눈 호강을 맘껏 누렸다.
우리 정원의 다음 순서는 국화다. 이미 여기저기 국화가 만개했지만

아직 절정은 아니다. 밭둑에 심어 놓은 국화가 신비한 모습을 활짝 드러내면
온통 국화도량이 될 것 같다. 올해는 국화를 조금 늦게 피게 할 요량으로 순 지르기를
여러 번 해 주었다. 그래야 한꺼번에 피었다지지 않는다. 어떤 꽃이든 차례차례 시간을 두고
피어야 더 아름답다. 무엇보다 올 봄부터 정성들여 가꾸어 온 동국 품종이 기다려진다.
노란 꽃망울이 알알이 맺혀 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 나희덕 '오분간'의 일부

정원을 가진 이들이라면, 저 시인의 표현에 깊이 공감할 것이다.
모종을 심고 꽃 피기를 기다리다가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다음 꽃을 기다리며
뜰을 서성이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말 꽃그늘 아래에서 세월이 다 지나갈지 모르겠다.
나의 하루를 헤아려보아도 꽃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더 많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정원 돌보는 일에 집중하느라 외출도 맘 놓고 못하는 형편이 된다.
헤르만 헤세는 평생 정원 가꾸기를 즐겼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정원을 만들고 다듬었다. 정원은 그에게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거룩한 장소였을 것이다.
장미꽃이 만발 할 즈음에 이탈리아 피렌체로 방문해 달라고 초청 하였을 때
"정원 일에 매달린 사람이 어찌 이곳을 떠나 있겠습니까? 도처에 잡초가 자랍니다.
게다가 달리아를 심고 콩과 오이를 파내고 그 자리에 당근 씨를 뿌려야 하니까요"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정원을 가까이하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 먼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된다.
다른 이들에겐 하찮은 이유일지모르나 정원사들에겐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정원 일보다 더 흥미 있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헤르만 헤세의 〈정원일의 즐거움〉을 읽다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메모해 놓았는데
한 줄 소개하면 이런 것이다.

"정원을 꾸리면서 느끼는 창조의 기쁨과 창조자로서의 우월감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한 뙈기 땅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바꾸어 놓는다. 여름을 기대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과 색과 향기를 창조해 낼 수 있다. 작은 꽃 밭, 몇 평 안 되는 땅을 갖가지 색채의 물결이 넘쳐나는
천국의 작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는 편지 쓰는 일을 제외하고 글 쓰는 일은 저녁 시간에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했다는 것인데, 말년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정원에서 보냈을 정도다. 헤세는 정원에서 쉬고 관찰하며
인생에 대해 사색했던 셈이다. 흙, 꽃, 풀, 채소, 나무 등 자연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삶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따로 경전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연보다 더 위대한 교사는 없기 때문이다.
누가 뭐래도 정원 가꾸는 비법은 '즐길 줄 아는 마음'이다. 즐기면서 일을 해야지 다른 답은 없다.
누가 시킨다면 이렇게 열심히 전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취미 삼아 즐길 때 생활의 활력으로
승화될 수 있다. 그날그날 조금씩 미루지 않고 일을 해야 지치지도 않고 격한 노동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야 그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삶의 충만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10월 5일 천안 화엄사 주지 도겸스님 재임명



10월 5일 송원사 주지 임하스님 임명



10월 6일 초하루법회



10월 16일 천년의 향기 5차



10월 20일 팔상전 가사불사 점안식



10월 24일 천년의 향기 6차

수능백일기도 회향

2022년 수능 100일기도 봉행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회　　향** : 불기 2565년 **11**월 **18**일(음력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2021. 1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9.27 다도반 법회	2 28 합창단 법회	3 29	4 30	5 9.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6 2 어린이법회
7 입동 3 신중기도회향	8 4	9 5	10 6	11 7	12 8 약사재일	13 9 어린이법회
14 10	15 11 다도반 법회	16 12	17 13	18 14 수능100일기도회향	19 15 보름 동안거 결제	20 16 미륵재일철야기도 어린이법회
21 17	22 소설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23 19	24 20 만공대선사다례	25 21 법주회 법회	26 22	27 23 어린이법회
28 24 관음재일 관음회법회	29 25	30 26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30분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미륵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후 3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후 2시 3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명부전 천일기도 봉행

《지장경》에 의하면 한 번의 49재를 봉행하여도 산 자와 영가 모두에게
무량한 공덕이 아닐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천일의 천도”야말로 희유한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조상 영가 천도기도에
많이 동참하시어 가내의 모든 권속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삼세선망 부모일체 영가님과
수자령영가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나아가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65년 **8**월 **22**일(음력 7월 15일) 일요일부터
■ **동　참　금** : 천일기도 **50**만원
■ **동 참 계 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 천일기도 중 100일마다 천도재를 봉행합니다.(별도신청)

약사여래불(원불) 모시는 분 천일기도 올려드립니다





■ **동참금** : 108만원
■ **동참계좌** : 농협 351-1124-3093-43
법주사

관음전 백일기도 회향 및 입재



■ **회 향** : 불기 2565년 **11**월 **28**일(음력 10월 24일) 일요일
■ **입 재** : 불기 2565년 **11**월 **29**일(음력 10월 25일) 월요일
■ **장 소** : 대웅전
■ **동참금** : 개인 **10**만원　가족 **20**만원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1년 **10**월 **2**일(음 8월 2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1년 **10**월 **16**일(음 9월 11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알기쉽고 재미있는 교리강좌를 개설합니다

■ **일　시**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2:30분 ~ 01:30분** 1시간
■ **장　소** : 법주사 강의실
■ **내　용** : 경전에 근거한 교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 **대　상** : 법주사 불자라면 누구나
■ **강　사** : 법주사 교무국장 두진스님
■ **참가비** : 무료

